

도시재생 사업 주민역량 강화

남원시, 29일까지 도시재생 주민공모 신청접수... 선정되면 지원금 최대 500만원

남원시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접수를 받는다.

공모 대상 지역은 동충·죽항·금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구역(1.12km)이다. 공모 분야는 도시재생 또는 공동체 활동과 연관된 사업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공모에는 남원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대학 참가자 또는 대상지역 거주자·사업체 종사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10%는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자부담 제외)

남원시는 도시재생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민 및 지역 활동가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시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접수를 받는다.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오는 6월 20일 남원문화원 1층에서 공모사업 설명회를 열어 공모사업에 대한 취지, 예산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건 규모로 공모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모사업의 성과와 주민 참여도에 따라 향후, 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남원시청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공

모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기획하고, 스스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다방면의 공모사업을 통해 활기찬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단체가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남원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나 남원시청 도시과에서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받는다.

문의는 (063-620-6472~3) 또는 (063-635-9391)로 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 지역자활센터, 자활프로그램 '우수'

보건복지부 평가서 선정... 2012년 이후 5년 연속 높은 평가 받아

임실군이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군은 특히 2012년 이후 지역자활센터 운영 평가에서 5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민간 주도의 지역자활 프로그램에 우수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23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사업실적 평가에서 임실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기간은 지난 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역자활센터별로 자활성공률 등 자활성과와 센터 및 자활기업 지원 등이 주된 평가내용이다.

이번 평가는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형(120개), 농촌형(53개), 농촌형(65개) 등 유형별로 진행됐다.

임실지역자활센터는 66개 농촌형 가운데 사업단 운영성과, 자활기업 운영성과, 센터운영, 외부지원 연계, 지역 사회 기여 및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일자리창출 브레인스토밍 가자

남원시가 지난 14일 시청회의실에서 부서장과 직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원만의 특색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첫걸음이었다.

참석자가 다함께 대통령의 추경예산 시정연설 중 핵심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박대 부서장이 정부 일자리정책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고, 직접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는 등 일자리관련 아이디어 발굴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경제과장의 남원시 일자리상황 보고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현황과 관련사업을 공유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4개조로 나누어 청년, 여성, 어르신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제시하였다.

이날 모인 제안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일자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남원시는 앞으로도 일자리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시민참여 등을 통해 든든하고 더 좋은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예산동아리 '온새미로', 청주대를 가다

행정학과 학생 대상 우수 사례 발표

남원시(시장 이환주)의 적극 행정과 지식 공유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남원시 온새미로(예산동아리)는 문경시 초청 강연에 이어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5일 초청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은 청주대학교(총장 정성봉)가 온새미로가 추진한 활동들을 언론에 통해 접하고 특히,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지방재정을 연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적극행정을 공유하는 모범사례로 청주대 학생들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온새미로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창립된 남원시 소속의 예산동아리(회장 김춘성)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 9월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하여

받은 상품권으로 점포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전통차 나누기 행사에 사용하고 있다.

2017년 첫모임을 시작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지방교부세 감액 ZERO 선언, 실과소·읍면동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여 예산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예산운영 팔각토론회'를 전국 최초로 매월 열고 있으며, 4개월에 걸쳐 '알기 쉬운 예산 이야기'라는 책자를 발간, 지방재정을 연구하고 세원 발굴, 세출절감 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지방교부세 감액 ZERO"선언으로 행정부와 전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온새미로의 활동 내역과 성과를 강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자연보호 토종어류 방류 행사

자연보호 임실군 협의회(회장 김은정)는 섬진강 상류인 임실군 관촌면, 신령면 일대에서 토종어류 방류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회원 및 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0kg 상당의 다슬기를 방류했다.

다슬기는 하천바닥의 폐사체 등 유기물을 제거해 수질개선에 도움을 주며 수생태계 복원·보존 및 수산자원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류행사 후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으며 효과적인 자연환경보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갔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교실

임실군은 오는 8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아동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한다.

보건의료원은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아동센터를 비롯해 6개소를 방문,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치과의사, 치위생사, 간호사, 운동 처방사 및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체성분 검사 및 결과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가상음주체험 및 음주예방교육, 키 측정 스트레칭 체조, 짬뽕 미각·열미도 테스트 등 체험형 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형진 보건의료원장은 "배움과 실천으로 올바른 행동변화를 가져오고 자가 건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성별영향평가 교육

임실군이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과 심준영 전북대학교 강사를 초빙해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과 개선사례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군은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군정 전반에 걸쳐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지리산국립공원 생태환경 협약 체결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국립공원 내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남원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간 업무협약을 남원시청에서 지난 15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이환주 남원시장, 박재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준무 농정과장과 조승익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을 비롯한 양 관계기관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업무협약서(MOU) 체결은 국립공원 내 각종 마을지원사업 추진 시 양 기관 상호간 활발한 정보교류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립공원 수생태계 보전과 합리적인 마을지원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 주요내용(협력활동)으로 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차 없는 마을사업 '국립공원 명품 마을사업'과 남원시에서 외운마을 내



경관·생태 환경개선을 위한 '청조적 마을만들기사업' 및 '지리산 구룡계곡 휴양물 저감사업' 등 구룡계곡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수(水)환경 개선 노력에 상호간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생태환경 개선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리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각종 마을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구룡계곡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수생태계 보전이 기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환

전북 지구 청년 회의소

전남·광주·전북(형제)지구 JC 간담회

영

-한지용 전남지구회장-

-정현균 광주지구회장-

-장승필 전북지구회장-

****형제(전남·광주·전북)지구 JC 간담회 전북 방문을 환영합니다.**

- ▶ 일시/장소: 2017년 6월 24일(토)~25일(일), 모항 해나루
- ▶ 참석대상
 - 전남, 광주, 전북지구JC 회장단 및 감사 상무위원, 롬회장
 - 한국JC 임원, 역대지구회장, 역대임원 등
- ▶ 주최: 전북지구청년회의소 (지구회장 장승필)
- ▶ 주관: 정읍청년회의소 (회장 김선홍)

세부 일정(안)

일	가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6/24	(토)	15:00~16:00	등록 및 방배경			모항 해나루				
		16:30~17:30	개회식							
		18:00~21:00	역식 및 우정의 밤							
6/25	(일)	08:00~08:30	기상							
		08:30~09:30	포식 및 유식							
		09:30~10:30	어린이 교통캠페인							
		10:30	예단식							